

## Q. 본문과 해석에 자유롭게 필기하면서 내용을 정리해 보시오.

## 본문해석지(문제지)

## 1. p32-수능 대비 ANALYSIS

The introduction of scientific methods into medical practice transformed the profession as well as its object.

Until the late nineteenth century, doctors were not required to have studied medicine and were relied on mainly to provide comfort and guidance to their patients.

As the practice of medicine shifted from cure to prevention, doctors were now expected to provide results based on scientific evidence.

As a result of this access to forms of knowledge beyond the understanding of the general public, more authority and power was granted to the medical profession, and the nature of the doctor/patient relationship changed.

Once the source of a disease was identified, patients expected that doctors should be able to cure them.

Additionally, those doctors with scientific training were now distinguished from a range of alternative healers, from homeopaths to midwives, resulting in an elevation in the eyes of the public of the status of the profession as compared with other healing practices, which persists today.

과학적 방법이 의료 행위에 도입되면서 그것의 목적뿐만 아니라 (의료) 전문직도 바뀌었다.

19세기 후반까지 의사들은 의학 공부를 요구받지 않았고, 주로 환자들에게 위안과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의지되었다.

의료 행위가 치료에서 예방으로 옮겨 가면서 의사들은 이제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결과를 제공하도록 기대되었다.

일반 대중의 이해 범위를 벗어나는 형태의 지식에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의료 전문직은 더 많은 권위와 권한을 부여받았고, 의사/환자 관계의 본질이 바뀌었다.

질병의 원인이 확인되면 환자들은 의사가 자신을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게다가 과학적 훈련을 받은 의사들은 이제 유사 요법 의사부터 조산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체 치료사와 구별되어, 대중들이 보기에 다른 치료 행위에 비해 의료 전문직의 지위가 상승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는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For millions of years, sea turtles would come to the beaches of Florida to spawn and their hatchlings would head toward the sea — to live a life far away — and to return to Florida years later.

It turns out that the way the young turtles knew to head toward the direction of the ocean was based on light glimmering off the sea at night.

The sea beautifully reflects the light of the moon and the stars, and for millions of years, a simple algorithm of "head toward the light at night" allowed the turtles to effectively head toward the sea to pursue an effective life strategy.

Well, then came Miami.

Miami and the other big cities on the coast of Florida are filled with lots of bright lights at night, so this led to an ecological disaster for the sea turtles.

Shaped by evolution to head toward light at night, hatchlings started toward the highways and cities by the millions — meeting premature death instead of a long sea-dwelling life.

수백만 년 동안 바다거북은 알을 낳기 위해 플로리다 해변에 왔고, 갓 부화한 새끼들은 바다를 향해 나아가 먼 곳에서 삶을 살다가 몇 년 후 플로리다로 돌아오곤 했다.

어린 거북들이 바다가 있는 방향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알았던 방법은 밤에 바다에서 반사되어 나오는 희미하게 빛나는 빛에 근거하고 있었음이 밝혀졌다.

바다는 달과 별의 빛을 아름답게 반사하고, 수백만 년 동안 "밤에는 빛을 향해 나아가라."라는 간단한 알고리즘은 거북들이 바다를 향해 효과적으로 나아가 효과적인 삶의 전략을 추구할 수 있게 했다.

그런데 이후에 Miami가 등장했다.

Miami와 플로리다 해안가의 다른 대도시들은 밤에 많은 밝은 불빛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이는 바다 거북에 생태학적 재앙을 초래했다.

진화에 의해 밤에 빛을 향해 나아가도록 만들어진 갓 부화한 새끼들은 수백만 마리가 고속 도로와 도시로 향하기 시작했고, 바다에서 살며 장수를 누리는 대신 때 이른 죽음을 맞이했다.

Those who migrate out of poor countries today need to have the money to afford the cost of travel and have the grit (or the advanced degrees) required to overcome a system of immigration control typically loaded against them.

For this reason, a lot of them bring exceptional talents — skills, ambition, patience, and stamina — that help them become job creators, or raise children who will be job creators.

A report by the Center for American Entrepreneurship found that, in 2017, out of the largest five hundred US companies by revenue, 43 percent were founded or co-founded by immigrants or the children of immigrants.

Moreover, immigrant-founded firms account for 52 percent of the top twenty-five firms, 57 percent of the top thirty-five firms, and nine of the top thirteen most valuable brands.

Henry Ford was the son of an Irish immigrant.

Steve Jobs's biological father was from Syria.

Sergey Brin was born in Russia.

오늘날 가난한 나라로부터 이주하는 사람들은 이동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그들에게 부담을 주는 출입국 관리 시스템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근성(또는 고급 학위)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 중 상당수는 기술, 야망, 인내심, 체력 등 그들이 일자리 창출자가 되거나 일자리 창출자가 될 자녀를 양육하는 데 도움이 되는 뛰어난 재능을 가져온다.

미국 기업가 정신 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수입 기준 미국에서 가장 큰 500개 회사 중 43퍼센트는 이민자 또는 이민자의 자녀가 설립했거나 공동 설립했음이 밝혀졌다.

게다가, 이민자가 설립한 기업은 상위 25개 기업 중 52퍼센트, 상위 35개 기업 중 57퍼센트,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 상위 13개 중 9개를 차지한다.

Henry Ford는 아일랜드 이민자의 아들이었다.

Steve Jobs의 친아버지는 시리아 출신이었다.

Sergey Brin은 러시아에서 태어났다.

Traditionally, garbage is considered the detritus of consumer and industrial practices.

It is the stuff that is no longer useful, that we no longer wish to have in our homes or personal spaces, that we want to throw away.

Perhaps precisely due to the proliferation of trash in material space, it has arguably also become a resource — something that has value and can be sold on at a profit.

Artists — most often at the leading edge of rethinking materiality, value, and beauty — are among the first social actors to have taken seriously the possibility of reusing trash to make new things.

Taking the discarded objects of others as found materials, many artists work with trash in order to create new aesthetic objects while at the same time making a commentary on the place of trash in the social and cultural world.

전통적으로 쓰레기는 소비자 및 산업 관행의 부산물로 여겨진다.

그것은 더 이상 유용하지 않고, 우리가 집이나 개인 공간에 더 이상 두고 싶지 않으며, 우리가 버리고 싶은 것이다.

아마 바로 물질적 공간에서의 쓰레기의 급증 때문에, 그것은 또한 거의 틀림없이 자원, 즉 가치가 있고 이윤을 남겨 팔 수 있는 무언가가 되었다.

예술가들은 가장 자주 물질성, 가치, 아름다움을 재고하는 데 있어서 최첨단에 있는데, 쓰레기를 재 사용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장 먼저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회적 행위자 중 하나이다.

다른 사람의 버려진 물건을 재활용 재료로 삼아, 많은 예술가는 새로운 미적 대상을 만들기 위해 쓰레기를 가지고 작업하는 동시에 사회적, 문화적 세계에서의 쓰레기의 지위에 대해 논평하기도 한다.

## 5. p60-수능 대비 ANALYSIS

When investors decide to buy physical goods, they follow a direct approach.

This approach provides the purest exposure to the commodity's price, but involves a cost.

When investors buy commodities, they need to understand the quality of the goods and the problems that can exist if that quality is lacking.

Another problem is the presence of different costs relating to storage, insurance, and cash opportunity costs.

These costs affect the management of the physical good.

As a result of the disadvantages of direct investment, investors typically prefer to indirectly assume a position in commodity markets to avoid the problems linked to the management of physical goods.

투자자가 물리적 상품을 구매하기로 결정하면, 그들은 직접적인 접근 방식을 따른다.

이 접근 방식은 상품의 가격에 대한 가장 순전한 노출을 제공하지만, 비용을 수반한다.

투자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그들은 상품의 품질과 그 품질이 부족한 경우 존재할 수 있는 문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보관, 보험, 현금기회비용과 관련된 다양한 비용의 존재이다.

이러한 비용은 물리적 상품의 관리에 영향을 준다.

직접 투자의 단점의 결과로,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물리적 상품 관리와 관련된 문제를 피하기 위해 상품 시장에서 간접적으로 입장을 취하는 것을 선호한다.

According to natural law theory, moral principles are not simply the result of human convention or social agreement, but are based on fundamental principles of nature, including human nature.

The term "natural law" refers to a set of ethical and moral principles that are thought to be inherent in the natural world and applicable to all human beings.

These principles are considered to be objective, universal, and immutable, and are often seen as a source of guidance for human behaviour.

Natural law theorists believe that the natural world operates according to a set of rational principles, and that these principles can be discovered through human reason and observation.

They argue that these principles provide a foundation for moral and legal systems, and that they are binding on all individuals, regardless of their cultural or social background.

Critics of natural law theory argue that it relies too heavily on unprovable assumptions about the existence of a divine purpose, and that it fails to account for the diversity of moral beliefs and practices across cultures and historical periods.

자연법 이론에 따르면, 도덕적 원칙은 단순히 인간의 관습이나 사회적 합의의 결과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포함하여 자연의 근본적인 원칙에 기초한다.

'자연법'이라는 용어는 자연계에 내재하고 있고 모든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일련의 윤리적, 도덕적 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원칙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이며 불변한다고 여겨지며, 인간 행동에 대한 지침의 원천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자연법 이론가들은 자연계가 일련의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작동하며, 이러한 원칙은 인간의 이성과 관찰을 통해 발견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들은 이러한 원칙이 도덕적, 법적인 체계의 기초를 제공하고, 문화적 또는 사회적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개인에게 구속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자연법 이론에 대한 비판론자들은 그것이 신성한 목적의 존재에 관한 증명할 수 없는 가정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문화와 역사 시대 전반에 걸친 도덕적 신념과 관행의 다양성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Most academic writing involves constructing an argument or supporting a position about some question or topic.

This requires clear organization with all your points directly connected to your argument or position.

In Western academic writing, a 'linear' style is preferred, where one point leads directly and unambiguously to the next, with little room for digressions.

The organization will depend on the purpose of the composition; a literary critique will have a different structure from a chemistry report.

Part of learning a discipline is learning the writing organization appropriately to that discipline.

For example, academic papers in my discipline (Applied Linguistics) usually have sections (e.g., Introduction, Literature review, Discussion, Conclusion), which are typically signposted with headings that make the organization of the paper explicit.

대부분의 학술적 글쓰기는 어떤 질문이나 주제에 관한 주장을 구성하거나 입장을 뒷받침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것은 여러분의 모든 요점이 여러분의 주장이나 입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도록 하면서 명확한 구조화를 필요로 한다.

서양의 학술적 글쓰기에서, '선형적' 방식이 선호되는데, 여기서는 하나의 요점이 직접적이고 모호하지 않게 다음으로 이어지면서 주제에서 벗어날 여지가 거의 없다.

구성은 작문의 목적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문학 비평은 화학 보고서와는 다른 구조를 갖게 마련이다.

어떤 학문 분야를 배우는 것의 일부는 그 학문 분야에 적합하게 글을 구성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 학문 분야(응용 언어학)의 학술 논문에는 일반적으로 단원(예컨대 서론, 문헌 조사, 토론, 결론)이 있는데, 이것에는 일반적으로 논문의 구성을 명시적이도록 만드는 제목으로 방향이 표시된다.

Habits are part of our everyday lives and therefore, when we don't clean our teeth, eat breakfast, have our morning coffee or have biscuits in the afternoon, we feel unsettled and a little bit stressed.

This feeling is unpleasant and we quickly learn that it can be avoided by carrying on with our habit.

Therefore, not eating biscuits feels unusual, but this can all be made OK with a few biscuits.

And the habit carries on as it becomes the solution to the problem created when trying to change it.

It's a vicious circle.

But it's the change in the habit which makes us feel stressed, not the absence of the actual behaviour.

And if we start to realise that the feeling of stress or worry is just 'withdrawal' and will only be made worse in the longer term if we give in and use the habit to get rid of it, then we can start to break the habit itself.

습관은 우리 일상생활의 일부이며, 따라서 이를 닦지 않거나, 아침을 먹지 않거나, 모닝커피를 마시지 않거나, 오후에 비스킷을 먹지 않으면 불안하고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 느낌이 든다.

이러한 느낌은 불쾌하며, 습관을 계속함으로써 이를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곧 알게 된다.

따라서 비스킷을 먹지 않는 것은 예외적인 것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몇 개의 비스킷으로 이것은 전부 괜찮아질 수 있다.

그리고 습관이 그것을 바꾸려고 할 때 생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됨에 따라 그 습관은 계속된다.

이는 악순환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느끼게 하는 것은 실제 (습관) 행동의 부재가 아니라 습관의 변화이다.

그리고 만약 스트레스나 걱정의 느낌이 단지 '금단 현상'이며, 우리가 굴복하고 습관을 이용하여 그것을 없애려고 하면 더 장기적으로 더 나빠질 뿐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그 습관 자체를 버리기 시작할 수 있다.



In your pursuit of proficiency in a foreign language, it's important that you study topics that are neither too easy nor too difficult for you at any given point in time.

This is particularly true if you're studying a language largely on your own.

If you already have a working knowledge of Greek, for example, it wouldn't be very helpful to spend all of your time studying basic vocabulary or completing elementary exercises, although some overlearning can be beneficial.

Although it may make you feel good about yourself to effortlessly rattle off simple phrases like "Where is the train station?" ultimately, rehearsing only easy material is not the best use of your study time.

By the same token, if you're a beginner, then jumping into a difficult topic, like the grammar for a language's subjunctive mood, is not time well spent either.

외국어 숙달을 추구하는 것에 있어, 시간상 어떤 특정 지점에서 너무 쉽지도 너무 어렵지도 않은 주제를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여러분이 주로 혼자서 언어를 공부하고 있다면 특히 사실이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그리스어에 대한 실용적인 지식이 이미 있다면, 약간의 과잉 학습이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기본 어휘를 공부하거나 초급 연습 문제를 완료하는 데 모든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기차역이 어디죠?"와 같은 간단한 문구를 수월하게 줄줄 말하는 것이 자신에 대해 기분 좋게 느끼도록 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쉬운 내용만 연습하는 것은 학습 시간을 가장 잘 활용하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초급자라면, 그렇다면 언어의 가정법 문법과 같은 어려운 주제로 뛰어드는 것도 시간을 잘 쓰는 것이 아니다.

Literacy is crucial to the teaching-learning process that occurs in the middle grades because this is when young adolescents begin to move from narrative to expository text, a process that places increasing demands on the students' literacy skills.

Unfortunately, despite these increasing demands on their literacy skills, formal reading instruction ends for many young adolescents once they enter middle school.

One reason for this is that only about 50 percent of middle-grades teachers receive training in the teaching of literacy, broadly conceived as integrated reading, writing, speaking, and listening.

Fewer still receive specific training in programs such as writing across the curriculum.

Consequently, many teachers are less than ideally prepared to teach content-area literacy strategies to their students.

Given the increasing emphasis on integrated curricula in the middle grades, all teachers, regardless of the subjects they teach, are being called on to integrate the language arts into their subjects.

문해력은 중학년의 교수-학습 과정에서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시기는 어린 청소년들이 이야기형 글에서 설명형 글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이고, 이는 학생들의 문해력 기술에 대해 점점 더 많은 요구를 하는 과정이다.

안타깝게도, 그들의 문해력 기술에 대한 이러한 요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들이 중학교에 입학하면 많은 어린 청소년을 위한 정규 읽기 교육이 중단된다.

이 이유 중 하나는 중학년 교사의 약 50퍼센트만이 통합된 읽기, 쓰기, 말하기, 그리고 듣기라고 널리 생각되는, 문해력의 교육에 대한 연수를 받는다는 것이다.

더 적은 수의 교사만이 여전히 교육 과정 전반에 걸친 작문과 같은 프로그램에 대한 특정 연수를 받는다.

그 결과, 많은 교사는 학생들에게 내용 영역별 문해력 전략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결코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중학년에서 통합 교과 과정을 점점 더 강조하는 것을 고려하면, 가르치는 과목과 관계없이, 모든 교사는 언어 과목을 자신의 과목에 통합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Many people who aspire to be novelists began their writing careers as journalists.

The thirteen-year-old Anne Frank had exactly this in mind for herself, and it is hard to believe that someone so full of life and so gifted at writing as a child would not have accomplished what she set out to do had the Nazis not murdered her.

She wrote in her diary about "the big question, will I ever be able to write something great, will I ever become a journalist or a writer?"

There are many others, too — Martha Gellhorn, Jack London, Margaret Mitchell (*Gone With the Wind*), Tom Wolfe — who wrote for newspapers or magazines before turning to fiction.

John Steinbeck, already a published novelist, wrote a series of pieces on the Okie migrant camps of California for the *San Francisco News* before writing his most celebrated book, also about the migrants, *The Grapes of Wrath*.

소설가가 되기를 열망하는 많은 사람이 언론인으로 글쓰기 경력을 시작했다.

13살의 Anne Frank는 자신을 위해 정확히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어린아이로서 매우 생기 넘치고 글쓰기에 그토록 재능이 있었던 그녀가 나치에게 살해당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하려고 했던 것을 성취하지 못했으리라고 믿기 어렵다.

그녀는 자신의 일기에 "가장 궁금한 것은, 내가 언젠가는 훌륭한 글을 쓸 수 있을까, 내가 언젠가 언론인이거나 작가가 될 수는 있을까?"에 대해 썼다.

Martha Gellhorn, Jack London, Margaret Mitchell(*Gone With the Wind*를 쓴), Tom Wolfe 등 소설로 전향하기 전에 신문이나 잡지에 글을 기고했던 많은 다른 사람들도 있다.

이미 출간한 소설가였던 John Steinbeck은 자신의 가장 유명한 책이자, 역시 이주민들에 관한 *The Grapes of Wrath*를 쓰기 전에 *San Francisco News*에 캘리포니아의 이주 농업 노동자 이주민 캠프에 대한 일련의 기사를 썼다.

Over the course of our evolution between 350,000 and 150,000 years ago, Homo sapiens developed an appetite for exploration and a wayfinding spirit that set us apart from other human species.

It had a huge effect on our future.

One of the most intriguing recent ideas in anthropology is that our ability to navigate was essential to our success as a species, because it allowed us to cultivate extensive social networks.

In prehistoric times, when people lived in small family units and spent much of their time looking for food and shelter, being able to share information with other groups about the whereabouts of resources and the movements of predators would have given us an evolutionary edge.

Friends were a survival asset.

If you ran out of food, you knew where to go; if you needed help on a hunt, you knew who to ask.

35만 년 전에서 15만 년 전 사이에 우리의 진화 과정에서, 호모 사피엔스는 우리를 다른 인간종과 구별하는 탐험에 대한 욕구와 길을 찾는 정신을 발전시켰다.

이는 우리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인류학에서 최근 가장 흥미로운 생각 중 하나는 길을 찾아 나가는 우리의 능력이 종으로서 우리의 성공에 필수적이었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광범위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게 해 주었기 때문이다.

선사 시대에 사람들이 소규모 가족 단위로 살고 그들의 대부분 시간을 식량과 은신처를 찾는 데 보냈을 때, 자원의 소재와 포식자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다른 집단과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진화적으로 강점을 주었을 것이다.

친구는 생존의 자산이었다.

만약 식량이 떨어지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었고, 사냥에 도움이 필요하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To avoid famine and economic dislocation, countries use different kinds of policies to provide incentives or disincentives for the production of different crops.

Subsidies are used to encourage agricultural production.

They come in many forms, but collectively they give producers the ability to sell products at prices that are lower than would otherwise be possible.

Almost every developed country has found itself subsidizing agricultural producers.

The exceptions — New Zealand, Australia, and to some extent Canada — represent special cases since they do not have large rural populations and their natural advantages in certain crops permit them to produce at lower costs than most other countries.

Subsidies ensure agricultural surpluses under most conditions, and they allow producers in a country that subsidizes agriculture to reap benefits as producers in non-subsidizing countries are forced out of business.

기근과 경제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국가들은 다양한 농작물 생산에 장려책 또는 억제책을 제공하는 여러 종류의 정책을 사용한다.

보조금은 농업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것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생산자에게 다른 방법으로 가능했을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

거의 모든 선진국은 농업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실정이다.

뉴질랜드, 호주, 그리고 일부 캐나다와 같은 예외는 특별한 사례를 대표하는데 그들은 대규모의 농업 인구가 없고, 특정 작물에 있어 그들이 가진 자연적 이점은 그들이 대부분의 다른 국가보다 낮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이다.

대부분 조건에서 보조금은 농업 흑자를 보장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국가의 생산자가 사업에서 강제로 밀려남에 따라 그것(보조금)은 농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국가의 생산자가 이익을 거둘 수 있게 해 준다.

Houses in Britain are too expensive in relation to income for households to buy a house for ready money at the beginning of their housing career or accumulate the purchase money from prior savings.

Most householders must therefore either hire a house, or buy one with borrowed money.

Housing must therefore be financed, and the finance has to be for a long term.

For buyers using borrowed funds, long-term loans are necessary to ensure that the principal repayments can be spread out thinly enough to be covered by annual income.

The investor in rental properties often finds that the yearly rent only covers a small portion of the debt used to purchase the property.

영국의 주택은 소득에 비해 너무 비싸서 가구가 주택 구매 경력 초기에 준비된 돈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이전의 저축액으로 구입 자금을 모을 수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가구주는 주택을 임차하거나, 융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해야 한다.

따라서 주택 구입에는 반드시 자금이 공급되어야 하며, 그 자금 공급은 장기적이어야 한다.

융자를 사용하는 구매자의 경우, 연간 소득에 의해 충당될 수 있을 정도로 원금 상환이 충분히 약하게 분산될 수 있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장기 융자가 필수적이다.

임대 부동산 투자자는 연간 임대료가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사용된 부채의 작은 일부만 감당하는 것을 보통 알게 된다.

The customary starting point for economic theory, the basic model to which other situations and policy options are compared, is a system of perfectly competitive markets.

This imagined economy is populated exclusively by small producers and individual consumers, all possessed of very broad information and very narrow motives and desires.

In such an economy, under long lists of traditional but unrealistic assumptions, economists have proved that there is always an "equilibrium" — that is, a set of prices at which supply equals demand for every commodity.

The invisible hand of market competition, in Adam Smith's famous metaphor, ensures that every resource is used wherever it will produce the greatest value for consumers.

Any deviation from the free-market outcome will make someone worse off, so there is no possible change to a market equilibrium that could win unanimous support.

경제 이론의 관례적인 출발점, 즉 다른 상황과 정책 선택권이 비교되는 기본 모형은 완벽하게 경쟁적인 시장 체제이다.

이 상상 속의 경제 체제는 오로지 소규모 생산자와 개별 소비자들만 살고 있으며, 모두 매우 광범위한 정보와 매우 좁은 동기 및 욕구를 지니고 있다.

그러한 경제 체제에서, 긴 목록의 전통적이지만 비현실적인 가정하에, 경제학자들은 '균형 (상태)', 즉 모든 상품에 대하여 공급이 수요와 일치하는 가격들의 집합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Adam Smith의 유명한 비유에서, 시장 경쟁의 보이지 않는 손은 모든 자원이 소비자에게 최고의 가치를 생산할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반드시 사용되게끔 한다.

자유 시장의 결과로부터의 어떤 이탈도 누군가의 처지를 더 나쁘게 만들 것이므로, 만장일치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시장 균형에 대한 변화는 불가능하다.

Over the years, the sports sector and the media sector have developed a self-interest relationship.

Both industries gain benefits from the complementary nature of their interests: while sport provides valuable content and audiences for media operators, the media is a revenue source and promotional tool for sport.

The sale of exclusive live sports broadcasting rights is an important, if not the principal, source of revenue for sports organisations and clubs, whereas live sports content is decisive for media operators to create attractive programming for their audience.

Wide coverage through television, for instance, can result in significant exposure for sports leagues.

Such exposure can deliver private benefits to the league and the clubs in the form of increased revenue from sponsorship and attraction of new supporters.

This implies that, without cameras, major sports events would have virtually no meaning at all.

수년에 걸쳐, 스포츠 분야와 미디어 분야는 사리 추구의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양 산업은 이익의 상호 보완적인 특성을 통해 이득을 보는데, 스포츠는 미디어 운영자들에게 가치 있는 콘텐츠와 시청자를 제공하는 한편, 미디어는 스포츠에 있어 수익원이자 홍보 도구이다.

스포츠 독점 생중계권의 판매는 스포츠 단체와 구단의 주요 수익원은 아닐지라도, 중요한 수익원이며, 한편 생중계 스포츠 콘텐츠는 미디어 운영자들이 시청자를 위한 매력적인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결정적이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을 통한 광범위한 보도는 스포츠 리그에 상당한 노출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노출은 협찬과 새로운 후원자 유치로부터 증가된 수익의 형태로 리그와 구단에 사적인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주요 스포츠 행사가 카메라 없이는 사실상 의미가 전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Good design starts with an understanding of psychology and technology.

Good design requires good communication, especially from machine to person, indicating what actions are possible, what is happening, and what is about to happen.

Communication is especially important when things go wrong.

It is relatively easy to design things that work smoothly and harmoniously as long as things go right.

But as soon as there is a problem or a misunderstanding, the problems arise and this is where good design is essential.

Designers need to focus their attention on the cases where things go wrong, not just on when things work as planned.

Actually, this is where the most satisfaction can arise: when something goes wrong but the machine highlights the problems, then the person understands the issue, takes the proper actions, and the problem is solved.

좋은 디자인은 심리학과 기술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된다.

좋은 디자인은 어떤 행동이 가능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어떤 일이 막 일어나려는지 알려 주는, 특히 기계에서 사람으로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필요로 한다.

의사소통은 일이 잘못될 때 특히 중요하다.

일이 제대로 진행되는 한 원활하고 조화롭게 작동하는 것을 디자인 하는 것은 비교적 쉽다.

하지만 문제나 오해가 생기자마자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 상황이 좋은 디자인이 필수적인 때이다.

디자이너는 일이 계획대로 진행될 때만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잘못되는 경우에도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

실제로 가장 큰 만족감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상황으로, 무언가 잘못되지만, 기계가 그 문제점을 강조하고, 그런 후 사람이 그 문제를 이해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 문제가 해결될 때이다.

When we read about psychology, how do we assess the quality of what we read?

First, we cannot judge the quality of an argument on the basis of what it concludes about people, or on the basis of whether we agree with the author's beliefs about people or not.

It is quite possible for two excellent psychologists to differ strongly about an aspect of human behaviour, while both providing convincing arguments and good evidence for reaching their conclusions.

As you read more widely in psychology, you will find that there are many differences in opinion among researchers.

It can even be the case that two researchers conduct what looks like the same experiment in two different settings, but get very different results.

This does not mean, necessarily, that either of the researchers did bad work.

On the contrary, different findings from different contexts may give us important information.

우리가 심리학에 관해 읽을 때, 어떻게 읽은 내용의 질을 평가할 수 있을까?

우선 우리는 어떤 한 주장의 질을 그것이 사람들에게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에 근거하거나, 또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대한 저자의 믿음에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없다.

두 명의 훌륭한 심리학자가 모두 자신의 결론에 도달한 것에 대해 설득력 있는 주장과 타당한 증거를 제시하면서도 인간 행동의 한 측면에 대해 강하게 의견을 달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여러분이 심리학에 대해 더 폭넓게 읽어 갈수록 여러분은 연구자들 사이에 많은 의견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심지어 두 명의 연구자가 두 개의 서로 다른 환경에서 겉보기에 같은 실험을 수행했지만, 매우 다른 결과를 얻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것이 반드시 두 연구자 중 어느 한 명이 잘못된 연구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와는 반대로, 서로 다른 맥락에서 나온 서로 다른 연구 결과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ll believe it when I see it.'

This familiar remark recalls how first-hand personal experience is commonly accepted as a convincing way — if not the fundamental way — to determine what to believe in.

Many centuries ago, for instance, it was unbelievable that there could be organisms so small as to be invisible to the naked eye.

Opinions changed after microscopes allowed us to see these tiny creatures in the late 1600s.

This emphasis upon direct personal experience is philosophically expandable to the point of prescribing how words must derive their meaning.

The prescription would be: if any given word is to be meaningful, then it must be traceable back to some sensory experience.

Otherwise, the word should be regarded as only a meaningless sound.

This experience-tied theory of meaning was advocated by the Scottish philosopher David Hume, an empiricist who believed that knowledge of what exists or is true can only come from observing the world.

'나는 그것을 보면 믿을 것이다.'

이 익숙한 말은 어떻게 직접적인 개인의 경험이 무엇을 믿을지 결정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아니더라도, 확실한 방법으로 흔히 받아들여지고 있는가를 상기시켜 준다.

예를 들어, 수 세기 전에는 맨눈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유기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1600년대 후반에 현미경으로 우리가 이 작은 생물체를 볼 수 있게 된 후에 견해가 바뀌었다.

이러한 직접적인 개인적 경험에 대한 강조는 단어가 어떻게 의미를 도출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데까지 철학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

그 규정은 다음과 같을 것인데, 만약 주어진 어떤 단어가 '의미를 가지려면', 그것은 어떤 감각적 경험으로 되짚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단어는 단순히 무의미한 소리로 여겨져야 한다.

이러한 경험과 연결된 의미 이론은 스코틀랜드의 철학자 David Hume에 의해 주장되었는데, 그는 존재하거나 진실인 것에 관한 지식은 오로지 세상을 관찰하는 데서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경험주의자였다.

Anger is clearly related to aggression but they are not one and the same.

It is possible to be aggressive without being angry, and it is equally possible to be angry without becoming aggressive.

However, the two (the emotion of anger and the behaviour of aggression) are linked and are biologically based, with obvious survival value.

Anger always results in a much increased burst of energy and, although biologically based, is seen by some psychologists as largely socially constructed.

That is, some people might be temperamentally more prone to anger than others, but the extent to which they express this is probably socially determined.

In our culture, for example, boys are encouraged to express their anger more openly than girls and a far greater proportion of men than women are made to take anger management courses.

These are learned differences. not differences of biology.

분노는 공격성과 분명히 관련이 있지만 둘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화를 내지 않고 공격적일 수도 있고, 공격적이 되지 않고 화를 내는 것도 똑같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둘(분노라는 감정과 공격이라는 행동)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생물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명백한 생존 가치를 지니고 있다.

분노는 항상 훨씬 증가된 에너지의 폭발을 낳으며, 비록 생물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더라도 일부 심리학자들에 의해 대부분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여겨진다.

즉,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기질적으로 화를 더 잘 낼 수도 있지만, 그들이 이것을 표현하는 정도는 아마도 사회적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우리 문화에서는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보다 화를 더 터놓고 표현하도록 권장되며, 여성보다 훨씬 더 큰 비율의 남성이 분노 관리 과정을 수강하게 된다.

이는 생물학적 차이가 아니라 학습된 차이이다.

As it has done in so many areas, the information-rich online environment has added a new dimension to the area of timeliness.

Years ago, learners were restricted to searching for information that was often available only in environments accessible by foot, car, bicycle, or public transportation.

It took time to get to information repositories, let alone to find good information.

Today, learners can find information instantly through devices that we carry in our pockets, purses, and backpacks.

Then, information seeking involved painstakingly finding a few "good" resources among the limited (but vetted) possibilities that were physically accessible.

Now, it involves skimming through the limitless (often unvetted) information online that comes and goes at lightning speed.

Given many students' tendency to delay — as well as to finish assignments in the least amount of time possible — the dangers of limiting one's information seeking to the online environment are clear.

—> The transition from physical access to limited resources to instant online access has created an abundance of unverified information, which highlights the risks of exclusively relying on online sources for learning.

매우 많은 분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정보가 풍부한 온라인 환경은 시의적절함이라는 영역에 새로운 자원을 더했다.

몇 년 전만 해도 학습자는 도보, 자동차, 자전거 또는 대중교통으로 접근할 수 있는 환경에서만 보통 이용 가능한 정보를 검색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좋은 정보를 찾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정보 저장소에 접근하는 데도 시간이 걸렸다.

오늘날 학습자는 주머니, 지갑, 배낭에 넣어서 가지고 다니는 기기를 통해 정보를 즉시 찾을 수 있다.

과거에는 정보 탐색이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제한된(그러나 검증된) 가능성 중에서 소수의 '좋은' 자료를 골라 찾는 것과 관련되었다.

현재 그것은 빛의 속도로 왔다가 사라지는, 온라인에서의 무한한(종종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대충 읽는 것과 관련된다.

많은 학생의 미루는 경향, 또한 과제를 가능한 한 가장 짧은 시간 안에 끝내려는 경향을 고려할 때, 정보 탐색을 온라인 환경으로 제한하는 것의 위험성은 분명하다.

—> 제한된 자원에 대한 물리적 접근에서 즉각적인 온라인 접근으로의 전환이 많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만들어 냈으며, 이는 학습을 위해 온라인 자료에만 의존하는 것의 위험을 부각한다.

From a psychological point of view, bad is stronger than good.

It takes four positive interactions to balance out a single negative one.

Bad memories resonate much more powerfully than good ones.

A bad experience from ten years ago might appear in your mind's eye in sharp focus with strong, clear emotions attached to it.

A happy memory from the same time period may have fuzzier edges and just an overall sense of pleasantness.

This is known as negativity bias or the negativity effect.

The human brain is organized to survive by avoiding negative experiences and emotions.

Our brains and emotional systems developed under evolutionary pressures to better keep us alive by remembering dangerous situations very clearly so we could avoid them in the future.

In modern times, we are unlikely to die from getting split off from our tribe and becoming prey to a wild beast, but our brains still look for negativity in every situation.

—> Negativity bias or the negative effect explains how bad experiences and memories outweigh good ones. and how our brains and emotional systems developed this way for our survival.

심리학적 관점에서, 나쁜 것이 좋은 것보다 더 강하다.

하나의 부정적인 것의 균형을 잡으려면 네 번의 긍정적인 상호 작용이 필요하다.

나쁜 기억은 좋은 기억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울려 퍼진다.

10년 전의 나쁜 경험은 그것에 결부된 강하고 선명한 감정과 함께 날카로운 초점으로 마음의 눈에 나타날 수도 있다.

같은 기간의 행복한 기억은 끝이 더 흐릿하고 전반적인 기분 좋았던 느낌만 있을 수 있다.

이를 '부정성 편향' 또는 '부정성 효과'라고 한다.

인간의 뇌는 부정적인 경험과 감정을 피하게 함으로써 생존하도록 조직되어 있다.

우리의 뇌와 감정 체계는 진화의 압박 속에, 우리가 향후에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위험한 상황을 매우 명확하게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계속 더 잘 살아남게 하기 위해 발달했다.

현재 시대에는 우리가 부족에서 떨어져 나와 맹수의 먹이가 되어 죽을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우리의 뇌는 여전히 모든 상황에서 부정적인 것을 찾는다.

—> 부정성 편향 또는 부정성 효과는 나쁜 경험과 기억이 좋은 경험과 기억을 어떻게 능가하며 우리의 뇌와 감정 체계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발달했음을 설명한다.

In a classic study from 1975, Ellen Langer and Jane Roth trained 90 Stanford undergraduate students to play a coin-flip game.

Students who guessed correctly early were much more likely to decide that they were correctly predicting the outcomes than students who guessed incorrectly early.

That is, a sequence of wins followed by losses led the students to imagine they understood the task and needed to try to figure out what was going wrong. while a series of losses intermixed with wins led the students to think it was random.

A sequence of four correct early guesses was enough to lead people to believe they could correctly guess the sequence "even for sophisticated subjects."

This is how the casinos hook people — a quick series of wins leads you to think that you can beat the game, even though WWWWWLLLLL (where W means win and L means lose) is just as random as WLWLLLWWLW.

—> In the 1975 study where students played a coin-flip game, initial successes led the participants to consider the future results to be predictable, which can explain the strategy casinos use to attract people.

1975년의 고전적인 연구에서 Ellen Langer와 Jane Roth는 Stanford 학부생 90명을 동전 던지기 게임을 하도록 훈련시켰다.

초반에 정확하게 추측한 학생들은 초반에 잘못 추측한 학생들보다 자신이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다.

즉, 연속적인 승리 후 패배가 이어진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이 과제를 이해했고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파악하려 해야 한다고 생각하도록 만든 반면, 승리와 섞여 있는 일련의 패배는 학생들로 하여금 그것이 무작위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었다.

초기에 연속으로 네 번의 정답을 맞히면 사람들로 하여금 '심지어 정교한 주제에 대해서도' 순서를 정확하게 맞힐 수 있다고 믿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카지노가 사람들을 걸려들게 하는 방식이 바로 이런 것으로, WWWWWLLLLL(여기서 W는 승리를 의미하고 L은 패배를 의미함)이 WLWLLLWWLW와 마찬가지로 무작위임에도 불구하고 빠른 연속적 승리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게임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 학생들이 동전 던지기 게임을 한 1975년의 연구에서, 초기의 성공은 참가자들로 하여금 미래의 결과가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었으며, 이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카지노가 쓰는 전략을 설명할 수 있다.

Heritability is frequently misunderstood.

For example, it is not a constant like the speed of light or gravity.

It is a statistic that describes a particular population at a particular time with that population's particular mix of genetic and environmental influences.

A simpler way of expressing this is that it describes what is but does not predict what could be.

Another population, or the same population at a different time, could have a different mix of genetic and environmental influences.

Heritability will reflect these differences.

For example, heritability of body weight is greater in wealthier countries such as the US than in poorer countries such as Albania and Nicaragua.

Wealthier countries have greater access to fast-food outlets and high-energy snacks, and greater access to fattening food leads to higher heritability because it exposes genetic differences in people's propensities to put on the pounds.

—> Heritability is a description reflecting genetic and environmental factors that vary depending on the context.

유전성은 자주 오해받는다.

예를 들어, 유전성은 빛의 속도나 중력처럼 상수가 아니다.

그것은 한 개체군에 대한 유전적 영향과 환경적 영향의 특정 조합으로 특정 시기의 특정 개체군을 설명하는 통계 자료이다.

이를 더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은 그것이 있는 것을 설명하지만 있을 수 있는 것을 예측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집단, 또는 다른 시기의 동일한 집단은 유전적 영향과 환경적 영향의 조합이 다를 수 있다.

유전성은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게 마련이다.

예를 들어, 체중의 유전성은 알바니아나 니카라과 같은 더 가난한 나라보다 미국과 같은 더 부유한 나라에서 더 크다.

더 부유한 나라는 패스트푸드 전문 매장과 고에너지 간식에 대한 접근성이 더 높고, 살찌는 음식에 대한 접근성이 더 높은 것은 더 높은 유전성으로 이어지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들의 몸무게가 나는 성향에 대한 유전적 차이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 유전성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유전적 및 환경적 요소를 반영하는 설명이다.